

통한의 강제이주... 그들은 하루도 고국을 잊은 적 없다

고려인 강제이주사

고려인은 누구인가

일제때 수탈과 탄압을 피해 만주로 간 사람들은 조선족이고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다. 고려인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건너갔다.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러시아(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을 말한다.

‘고려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들을 지칭하며 러시아어 ‘까레이스키’로 불린다. 현지 고려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인 또는 고려족, 고려사람이라고 부른다.

고려인의 역사는 약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인은 1860년대 함경도 주민들이 대기근을 겪으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간 것으로 시작되었다.

연해주 정착에 성공한 한인들

처음에 불과 13가구였던 고려인은 1930년대엔 20만 명을 넘어섰다.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일본의 강점 하에 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기도 했다.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의 일치단결한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족운동가들의 선도에 의해 독립군기지로 이주한 동포들은 곳곳에 한인촌락을 건설하고 생계유지와 독립군에 대한 후원을 위해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펼쳤다. 한인들 중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여 콩·조·옥수수 등을 경작했으며, 점차적으로 수로를 개발하여 벼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작인으로 시작한 동포들은 극히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동포들은 이를 이겨내고 굳건한 한인사회 및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

1937 스탈린의 강제이주령

하지만, 1937년 9월 21일 고려인들은 공산혁명으로 집권한 스탈린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다.

한인들은 어느날 저녁 간단한 소지품과 침구, 의류, 3일분의 식량만을 지참하고 블라디보스톡 역광장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허가품 이외에는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 고려인들의 재산은 소련정부에 강제양도 당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우즈베키스탄 1만6천272가구 7만6천525명과 카자흐스탄 2만170가구 9만5천256명에 달했다. 도합 18만명이 넘는다.

2차대전 참전을 앞둔 스탈린은 서쪽으로는 독일군을 견제하고 동쪽으로는 일본을 견제해야 할 처지였다. 스탈린은 폴란드 국경일대에 거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열차가 장장 한달을 달려 한인들을 불러 놓았던 우슈투베 역. 지난 10월 초 모습이다. 카자흐스탄 동쪽의 황무지였다. 죽음의 열차에서 살아남아 이곳에 도착한 한인들은 흑한과 싸우며 겨울을 이겨내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 제고〉

주하는 독일계 주민 십여만명,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 18만명을 소련 내 급속한 한인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전쟁 발발시 이들의 스파이 행위나 내응을 방지하고자 했다.

독일계 주민은 그렇다 치고, 연해주 한인들은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시 일본인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부 한인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연해주의 한인들이 농사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점도 이주정책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시 소련연방에 편입된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황무지를 개간시키는데 소비에트는 한인들을 투입하는게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강제이주 기간동안 한인들은 농식의 씨앗은 잊지 않았다고 하니 한인들의 농사에 대한 집념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죽음의 6천km 시베리아 열차

강제 이주는 지식인의 사전 처형으로부터 시작됐다.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간 수천 명에 달하

는 한인 지도자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곧이어 진행된 강제 이주는 일찍 찾아오는 시베리아의 겨울을 관통하는 장장 6천km의 철도 이송이었다. 추위와 질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죽음의 열차였다.

‘먹을 것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기차가 석탄이나 물을 보충하기 위해 역에 서면 간이 상점에 뛰어가 ‘사람이 먹는 것은 무엇이나 다치는 대로 사다 먹으면서’ 강제이주 당했다.

열차가 화장실이 없었으며 역 구내에 열차를 세우면 모두가 내려 대소변을 본다. ‘역도 아닌 허허벌판’에 차를 세웠다.

시베리아 추운 겨울 10월에 시작된 강제이주는 이듬해인 1938년 4월에 끝날 때까지 약 3만여 명이 강제이주 과정에서 숨질 정도로 처참했다. 이주민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3주에서 4주간을 열차 속에 있어야 했다.

초반에는 큰 역에서 따뜻한 물을 공급 받았지만 점차 이마저도 없어지고, 인적이 드문 역에만 정착했다.

배고픔에 시달린 사람들은 정착하는 역에서

배를 채우느라 바빴고, 먹을 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수와 목욕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도착할 때까지 열차 안은 소독도 없었고, 목욕도 할 수 없어 사람들 옷에는 이가 쪼아졌고,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병자가 생기면 열차에서 내려졌는데, 완쾌되면 가족에게 돌려보내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소식이 끊긴 채 사망했다.

카자흐스탄 동쪽 변방 우슈투베역에 짐처럼 부러진 한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끔찍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영하 36도가 넘었다고 한다.

천막이나 토굴이 생활 터전의 전부였고 인류 생활이 원시사회로 거슬러갔다고 한다. 집집마다 얼어죽는 아동들이 3~4명씩 나왔다.

그리고 집단농장인 콜호즈는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수십명의 허약한 노인들과 고아들이 생겨났으며 1941년 강제이주 때는 한인 주민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고 한다.

역경 이기고 중앙아시아 정착

강제이주 이후 한인의 거주 이전은 제한됐다. 한인들은 일정한 거주 구역이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적어도 1953년까지 약 16년 간 집단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족 교육이 금지되었음은 물론 국가 기관 취업과 취학에도 제한이 있었으며 사회정치적 진출도 사실상 봉쇄됐다.

이 모든 제한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비로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주요 벼농사 지역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인들은 목화 등 다른 작물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올리면서 빠르게 정착해 갔다. 이후 중앙아시아 개발에 앞장서 특유의 개척 정신과 영농법으로 수많은 모범 콜호스를 탄생시켰다.

또한 1945년에서 1991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던 사람은 650명이고, 그중 139명이 한인이다.

우즈베키스탄 거주 120개 민족중 한인들은 공화국 총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독보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총명성이 돋보인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외에 11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다시 연해주 지방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 코리아의 소식은 늘 고려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조상의 땅 한국으로 입국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보편적 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송선교 학생기자〉

편집=김하늬 학생기자

미하일 옹이 겪은 죽음의 시베리아열차

1937년 9월 하순 어느날, 연해주의 중심 도시 블라디보스톡 중앙역 광장에는 손에 보통이와 가방을 든 한인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소련 군인들이 광장 주변에 도열한 가운데로 한인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인채 한데 모였다. 수천명이었다.



한인들의 거주지를 먼곳으로 옮긴다는 말만 나왔을 뿐 누구도 정확한 내막을 몰랐다. 그 군중 속의 한명이었던 열네살 소년 천 미하일.

그는 지금 91세의 노령으로 카자흐스탄의 동쪽 소도시 우슈투베에 살고 있다. 우슈투베는 한인 강제이주열차가 멈춘곳 황무지 동토에서 억척스럽게 일해 살아남은 천 미하일 옹으로부터 죽음의 시베리아 강제이송열차의 이야기를 들어냈다. 천옹의 구술은 지난날 25일 국제전화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울음소리 가득한 블라디보스톡 중앙역 추위·배고픔과 싸우며 한달 넘는 여정 어린이 등 죽음 속출...사체 그대로 버려

우리가족은 이웃들과 함께 ‘살마 무슨 일 있겠는가’하며 거차에 탈 순서를 기다렸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 형 두명과 나와 동생 두명등 모두 8명이였다. 어떤 가족은 서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울음소리가 플랫폼에 가득했다.

나는 아버지가 준 보따리를 꼭 들고 열차에 올랐다. 화물칸에 판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캄캄한 화물칸 바닥에 모두 앉았다. 한칸에 50명정도가 탄 것 같다. 열차는 모두 30량이 넘어보였다.

열차가 출발기적을 울리자 우는 사람이 많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슬픈 가락이었다. 북쪽으로 달리며 기차는 두세시간만에 한번씩 멈췄다. 다른 조선사람들을 싣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재빨리 내려 오줌을 누기도 했다. 사흘 밤 낮을 달렸다. 자작나무가 울창한 들판이 나왔다. 그곳이 시베리아였다. 밤은 주먹밥이었다. 삶은 계란을 먹기도 했지만 곧 다 떨어졌다. 하루 두끼정도 먹었는데 나중엔 하루 한끼도 어려웠다.

일주일쯤 달리는데 죽는 사람이 나왔다. 나이는 여섯이었는데 기침을 많이했다. 사체는 어떤 역의 낮은 언덕에 여럿이서 땅을 파고 묻는 걸 나와 형들은 멀리서 구경했다. 다른 화물칸에서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 나중에는 멈추는 역에 시체를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흉역이 나뒀다고 했다. 역에 멈출 때마다 용변을 보거나 물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역 구내에서 빠져나가봐야 허허벌판이었다. 이미 눈이 쌓여있었다. 탈출하면 얼어죽는 게 뻔했고 누구도 도망칠 생각은 안했다.

좁은 화물칸에서 오래 함께 지낸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몇 안남은 감자나 옥수수를 나눠먹었다. 소련병사들이 한번씩 빵을 넣어주는 날도 있었다. 크고 딱딱한 러시아 빵이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벌판을 열차는 한달 이상 달렸던 것 같다.

무시무시한 추위였다. 밤엔 이가 덜덜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벼룩과 이가 들끓고 악취가 너무 심했다. 할아버지는 거의 돌아갈실 지경이었지만 용케 버티었다. 우라칸에서부터 여섯 일쯤은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다가 열차가 마지막 역에 도착했다. 우슈투베라는 작은 역이었다. 역사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빨리 내리라는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업었고 형은 막내동생을 업고걸었다. 바람소리가 무서웠다. 그렇게 우리가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국제전화 통화, 구술정리=천단단 학생기자〉

What?

당신은 고민투성이입니다. 김지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생존경쟁의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How?

우리 역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당신을 웃게 할 수 있을지!

내인생 최고의 선택! 호남대학교! 사랑해요!